

‘위기의 지구, SOS’ 3만2000명 방문...환경교육 역할 톡톡

광주과학관 특별전 성황...과학문화 확산 기여 기업·단체 후원 민·관 협력 사회공헌 모델 제시

기후 위기와 생태계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 국립광주과학관 기후 및 멸종위기 특별전 ‘위기의 지구, SOS’가 최근 관람객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특별전은 전시 기간 총 3만 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지역 내 환경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지역 대표 기업 및 단체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과학문화 취약계층에게 폭넓은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에는 ㈜무진기연과 ㈜그린이엔에스, 하나은행, 동경건설㈜, ㈜커퍼비, 광주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해 평소 과학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려

계층이 수준 높은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같은 후원은 단순한 기부 넘어 지역사회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고 기후 위기 공감대를 넓히는 환경·사회·투명 (ESG) 경영 실천의 모범 사례로써 평가받고 있다.

전시 성공 요인으로 과학적 사실을 예술적 감성으로 풀어낸 고품격 콘텐츠와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꼽힌다.

장한나(뉴라), 논후민 난센스(핑크치킨), 이재혁(중이공예), 김동원(정크아트) 등 국내의 작가들의 독창적인 협력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정서적 공감과 성찰을 선사했다.

또한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의 박제 표본을 비롯해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낙동



국립광주과학관 기후 및 멸종위기 특별전 ‘위기의 지구, SOS’가 최근 관람객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관람객들이 지구 온실효과를 활용한 지구 온난화를 위한 다양한 이상기후를 알아보는 모습. 사진제공=국립광주과학관

강생물자원관 등의 전문 자료와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정책 자료가 더해져 전시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탄소중립 등 국

가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증강현실 (AR) 스크램블 미션 투어’, ‘도전! 탐구활동지 미션’ 등으로 구현한 기획은 학부모와 청소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달 19일 국립과학관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과학관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해 전시 기획 의도와 연출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대외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박은미 선남 달 19일 국립과학관협의회에 참석한 임연구원은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기후 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지역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ESG) 실천과 시민들의 성숙한 관람 문화가 더해져 전시의 진정성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깊이 호흡하는 고품격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의 지구, SOS’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로 6번째 대멸종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다가오는 여섯 번째 대멸종, 기후시스템과 지구온난화,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한 지구 등으로 전시가 구성됐다. 지구를 위협하는 이상 기후를 알아보는 지구온실효과와 지구 온도에 따라 바뀌는 기후줄무늬, 기후위기에 위협받는 생물을 알아보는 천연기념물 박제표본, 기후 및 멸종위기를 표현한 페이퍼 및 정크아트 작품 등이 주요전시품으로 제시됐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장흥군,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 봉행

애국정신·동양 평화 사상 기여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거행됐다.

31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가 지역민, 문중 관계자, 초·중학생을 비롯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하일빈 의거 이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 평화 사상을 되새기고, 그 뜻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문중의 전통 제례, 국민의례, 추모사, 악사보고,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해동사 경내에서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가 최근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에서 거행됐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있도록 했으며, 외부 무대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열린 분위기에서 참여형 추모가 이뤄지도록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제례의 엄숙함과 역사·문화·체험·공연 프로그램의 참여성을 동시에 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세대 간 공감,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행사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중근 의사의 일생을 추모곡과 뮤지컬 퍼포먼스로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고, 안중근 의사의 유목 쓰기 시연 및 관련 체험활동이 운영돼 지역민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계승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홍=정명수 기자 jms050311@



리뉴어스(주)가 최근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한 기탁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리뉴어스(주), 미래 인재에 꿈·희망 전달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 1000만원 기탁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최근 리뉴어스(주)로부터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한 기탁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2020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리뉴어스는 경기 안양시에 본사를 둔 환경 분야 전문 기업으로 현재 곡성 옥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이번에 전달 받은 기탁금을 지역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정택 대표는 “곡성군의 미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장학금 지원, 곡성형 창의교육, 창의융합교육, 문화예술포럼, 진로탐색 지원, 평생교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에 따라 기부금을 운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운영팀 (061-884-8211)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유범 기자 hnnews1@

‘저자와의 대화’...지역발전 전략 모색

이무용 교수 ‘...장소가치 실현전략’ 저서 출간 3일 양림동 10년후 그라운드서...발표·토론 등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무용 교수(사진)의 신간 마케팅 전략서 ‘Place Braketing : 장소가치 실현 전략’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을 기념하는 ‘저자와의 대화’가 오는 3일 오후 5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11(양림동) 10년후 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개원 20주년 본행사오는 10일 예정된 가운데 연계 행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신간 출간을 계기로, 책이 제안하는 ‘장소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광주와 전남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개원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과 장소,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무용 교수는 지역문화와 도시문화, 장소마케팅, 문화정책 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과 문화도시 정책 현장에 참여해 왔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장소가치에 주목하며, 도시마케팅과 장소브랜드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Place Braketing: 장소가치 실현전



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집필한 결과물이다.

지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 상징과 기억을 미래 발전의 전략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의 장소가치에 주목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개최 및 행사 안내,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지고, 2부에서는 이무용 교수가 직접 신간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

3부에서는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인 황봉년 전라도닷컴 대표와 윤성진 한국문화기획학교 이사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책의 문제의식과 지역적 함의를 함께 논의하며, 이어 종합토론과 정중 질의를 통해 논의를 확장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구례 지산장에서 제27회 산수유꽃축제 기념 전국 남녀 공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제공=구례군청

구례군, 전국 남녀 공도대회 성료

지산장에서 공도인 920여명 실력 겨뤘

구례군은 최근 지산장에서 제27회 산수유꽃축제 기념 전국 남녀 공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 무예인 공도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920여명의 공도인이 참가해 개인전, 단체전, 실업부 총 3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강진군 양무정에서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장년부 광양시 마로정 오무진, 여자부 함안군 가아정 신정희, 노년부 남원시 관덕정 이종규, 실업부는 세종시 금덕정 안중현 선수

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구례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다양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스포츠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입상한 선수들에게 축하와 함께 300리 빛꽃, 구례 산수유꽃, 흥매화가 만개한 구례의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이자 정신 수양의 스포츠인 공도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lgjin@gwangnam.co.kr

담양군, 다문화가정 초보 부모 ‘엄마모임’ 운영

육아 정보 공유·정서적 지지...양육 부담 덜어

담양군은 최근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엄마모임’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3월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담양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됐으며,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으로 지속적인 방문 관리를 받는 11개 가정이 참여했다.

엄마모임은 임신과 출산 후 초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부모 간 지지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문화 가정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정서 지원 활동, 아기 감각 발달 놀이, 육아 경험 나누기 등으로, 비슷한 시기의 아이



를 키우는 부모들이 소통하며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엄마모임을 통해 초보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